

하나님의 선물

전도서 5:18-20



설교영상
(나경식 담임목사)

민족의 명절 설날을 맞아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전도서는 인생의 허무함을 솔직하게 말하는 책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선물이 무엇인지도 분명히 알려 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로 받고 기쁨으로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1.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께서 주신 몫입니다. (18절)

전도자는 사람이 평생 살아가며 감당하는 모든 수고 가운데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수고의 고단함만 바라보기 쉽지만,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상과 수고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몫’이라고 말합니다.

몫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헬렉’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분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자리와 내가 감당하는 수고는 내가 스스로 만들어 낸 결과라기 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더 많이 가져야 기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니, 지금 가진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누릴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오늘 설명절에 차려진 이 식탁, 함께 나누는 음식과 대화는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지난 한 해의 수고와 애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의 선물이었습니 다. 이 명절에 함께 둘러앉은 가족들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 수고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19절)

전도자는 먹고 마시며 심히 기뻐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특별한 잔치나 큰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전도자가 말하는 참된 부요함은 재산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쁨으로 받아 들이는 마음, 그것이 진짜 부요함입니다. 많이 가지고 있어도 누리지 못하면 부요하지 않고, 가진 것이 많지 않아 보여도 감사로 누릴 수 있다면 그는 이미 부요한 사람입니다.

오늘처럼 가족이 함께 모여 웃으며 식사하는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잊고 지냈던 기쁨을 다시 떠올리게 하시는 은혜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한 해를 살아가며 우리는 다시 각자의 수고의 자리로 돌아가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삶의 몫을 감사로 받아들이고, 작은 기쁨도 은혜로 누릴 수 있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설날되세요

설명절 가정예배

2026

설에 드리는 예배는 올해도 우리와 함께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온 가족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신앙고백 -----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 아침 해가 돋을 때(찬 552장)

1.아 침 해 가 돌 을 때 만 물 신 선 하 여 라
2.새 로 오 가 는 광 음 때 보 람 있 게 보 내 고
3.한 번 가 면 안 오 는 여 빠 른 광 음 지 날 때
4.밤 낮 주 를 위 하 여 몸 과 맘 을 드 리 고

5 나 도 세 상 지 낼 때 - 주 의 일 을 행 할 때 - 햇 빛 되 게 하 소 서
귀 한 시 간 바 쳐 서 - 주 의 사 랑 나 타 내 -

10 주 여 나 를 도 우 사 세 월 허 송 앓 고 서

15 어 둔 세 상 지 낼 때 햇 빛 되 게 하 소 서

기 도 ----- 다 같 이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가정을 변함없는 은혜로 돌보아 주시고, 2026년 설 날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2026년 올 한해도 저희 가정이 오직 주님으로만 기뻐하고 감사하며 은혜 충만한 삶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음력으로 새해를 시작하며 가족 모두가 하나님께 마음과 뜻을 모아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또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말씀 ----- 전도서 5:18-20

18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19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20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말씀나눔 ----- 하나님의 선물 (뒷면 참조)

찬 송 ----- 좋으신 하나님

1. 좋 으 신 하 나 님 좋 으 신 하 나 님
2. 우 리 의 하 기 나 도 를 응 답 신 해 주 나 시 는
3. 한 없 는 축 복 을 우 리 게 주 시 는

5 참 좋 으 신 나 의 하 나 님

주기도문 ----- 다 같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